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13월의 월급’ 이르면 19일 받는다… 국세청, 지급일정 10일 이상 단축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19일 일괄 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원래 지급일정은 31일이지만,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급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개별 기업 내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삿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는 1409만명으로 1인당 77만원, 총 10.9조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국세청 측은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국세청장, 암참 만나 외국계 기업 국내투자… 세금지원 약속

김창기 국세청장이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관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이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국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인 327.2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 투자 비중이 61.3억 달러로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암참 대표단 역시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의 신속 처리 등을 요청했다.

APA란 그룹 내 계열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이 사전 협의로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소득자료 제출 세액공제’ 사업자 98%가 깜빡…국세청 직권환급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월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규모인 탓에 이러한 세액공제를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환급하며,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